

대학 자율혁신 기반 일반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성과 분석¹⁾

-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대학혁신 지원사업이 2019년 출범되었고,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 등의 일반재정지원이 확대되었음.

* 2023년부터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하여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함

-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안정적인 대학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연구·운영 전반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들이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파악하고자 함

❖ 정부 대학재정지원 현황

대학 당 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국공립대는 1,006억원, 사립대는 491억원임

- 2024년 중앙정부의 4년제 대학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간 총 11조 6천억원을 지원하였음
 - 국공립대학의 전체 지원액은 3조 9천억원 규모이고, 사립대학의 전체 지원액은 7조 7천억원 규모임
 - ※ '국공립대 경상비 운영 지원' 사업목적 지원액은 분석에서 제외함
(‘국공립대 경상비 운영 지원’에는 국립대학 인건비, 국립대학 시설확충비, 타부처 소관 고등교육기관 운영 지원비 등이 포함됨)
 - ※ '국공립대 경상비 운영 지원' 사업목적 지원액을 포함하면 국공립대 전체 지원액은 8조 1천억원 규모이고, 교당 평균 지원액은 2,074억원임
- 2024년 중앙정부의 4년제 대학 교당 평균 지원액은 594억원임
 - 경상비 예산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 기준 설립별 교당 평균 지원액은 국공립대 1,006억원, 사립대 491억원으로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약 2.1배 더 높음
 -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706억, 비수도권 526억, 규모별로는 대규모 1,329억원, 중소규모 234억원임

발행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행인 이기정

담 당 고등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박연복·조혜진 선임연구원

문 의 02-6919-3906

〈표 1〉 2024년 중앙정부의 대학특성 및 사업목적별 재정지원 현황(4년제 대학)

(단위: 개,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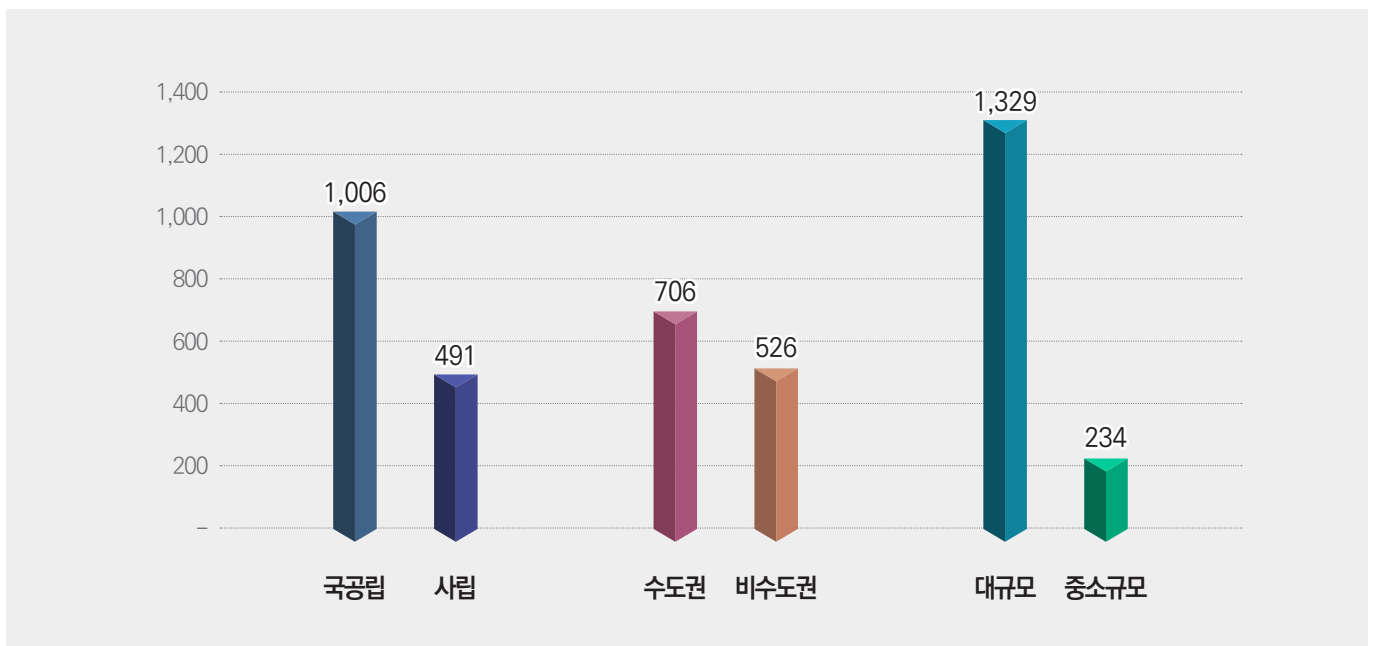
구분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기타		합계	
대학특성		학교수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지원액 비율
설립	국공립	39	17,333	25.7	14,061	38.5	7,012	73.5	832	38.0	39,239	33.9
	사립	156	50,170	74.3	22,480	61.5	2,524	26.5	1,357	62.0	76,531	66.1
소재지	수도권	73	26,043	38.6	22,062	60.4	2,601	27.3	864	39.5	51,570	44.5
	비수도권	122	41,460	61.4	14,480	39.6	6,936	72.7	1,326	60.5	64,201	55.5
규모	대규모	64	45,046	66.7	31,598	86.5	6,723	70.5	1,707	78.0	85,074	73.5
	중소규모	131	22,457	33.3	4,943	13.5	2,813	29.5	482	22.0	30,696	26.5
총합계		195	67,503	100.0	36,542	100.0	9,537	100.0	2,189	100.0	115,770	100.0

주 : 1. 특별법법인 및 특별법국립,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제외

2. '국공립대 경상비 운영 지원' 사업목적 지원액 제외

3. 대학 규모 구분 기준 : 재학생 1만명 이상 대규모, 그 외 중소규모

자료 : 대학재정알리미



[그림 1] 중앙정부의 교당 평균 재정지원액 (단위: 억 원)

❖ 일반재정지원사업 수혜 현황

일반재정지원사업비 수혜 실적 분석 결과 국립대학은 약 2.17배 증가, 사립대학은 약 2.12배 증가

- 대학의 국고 지원 중 일반재정지원 총사업비는 2019년 이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특히, 고특화계가 도입된 2023년에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 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은 2019년 2,703억원에서 2024년 5,863억원으로 약 2.17배 증가함
 - 사립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은 2019년 4,261억원에서 2024년 9,045억원으로 약 2.12배 증가함
- 2024년 기준 일반재정지원 총사업비의 교당 평균의 차이(국립대학-사립대학)는 73억원으로 국립대학의 교당 평균 지원액이 사립대학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2019년의 교당 평균 차이는 33억원 정도이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2〉 일반재정지원사업비 수혜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학교 수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립대학	36	270,346	277,759	300,269	310,544	470,739	586,314
사립대학	101	426,127	486,237	520,138	568,724	815,917	904,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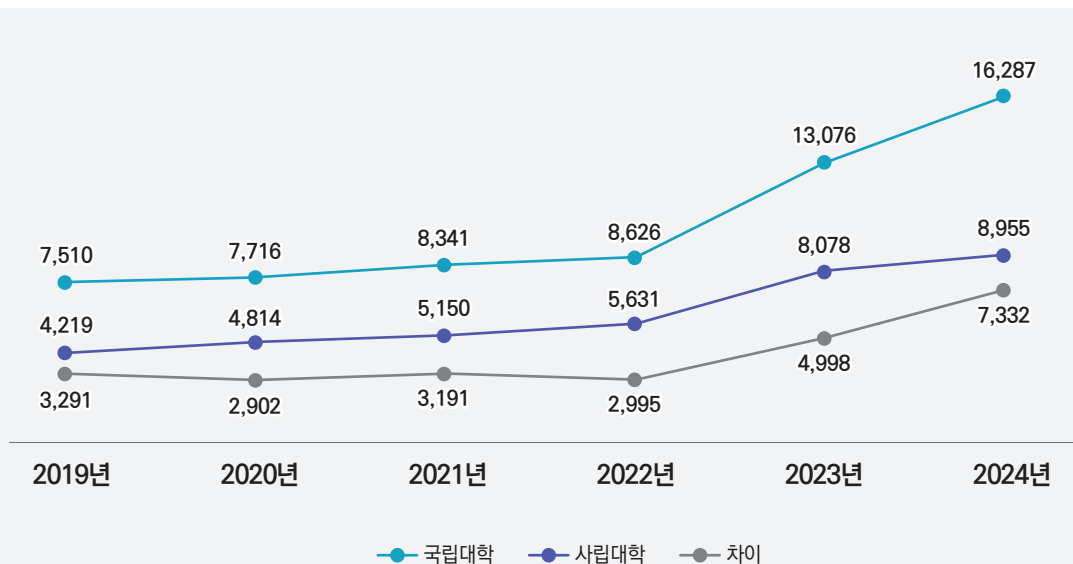
주 : 1. 특별법법인 및 특별법국립대학교 제외, 산업대 및 방송통신대, 폐교 제외함. 한국복지대학교는 한경대학교와 통합으로 2022년까지 사업비 수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경상국립대학교와 통합으로 2020년까지 사업비 지원 받음

2. 2023년부터 국립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국립대학육성사업비로 이관됨. 국립대학의 재정지원 수혜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비와 국립대학육성사업비의 합산액으로 제시함

3. 사립대학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대학 160교 중 1주기와 2주기 모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101개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분석함

자료 : 교육부 내부자료 재구성

출처 : 남수경 외(2026). 〈표 III-22〉, 〈표 III-24〉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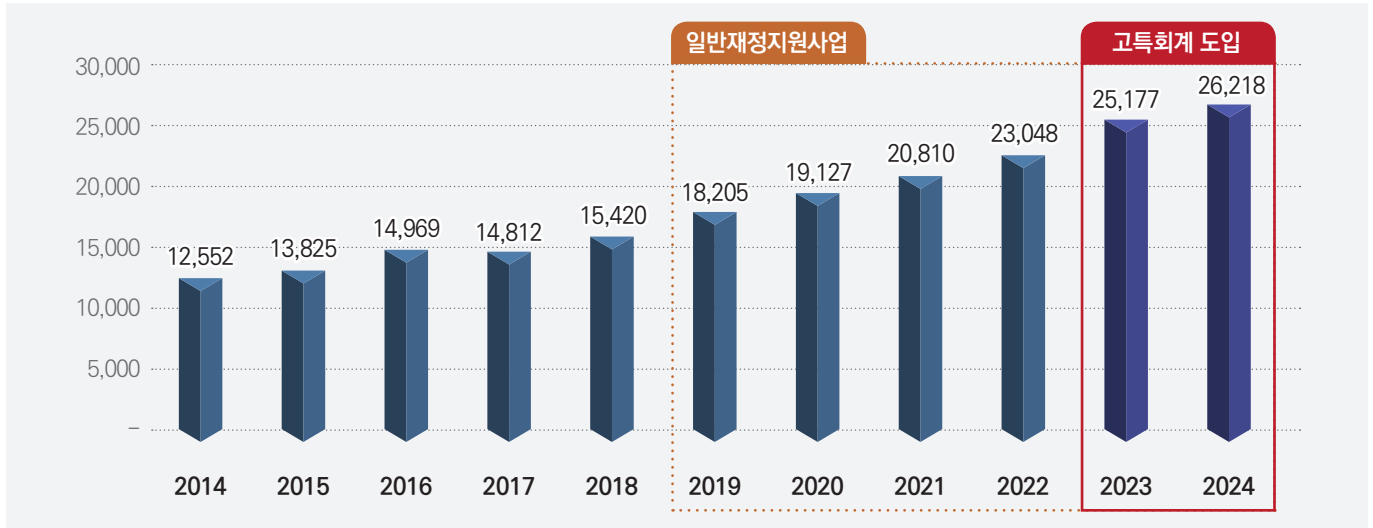


〔그림 2〕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비 교당 경비의 평균액 및 차이값 변화 (단위: 백만 원)

❖ 학생 1인당 교육비 변화 추이

2024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8년 대비 국립대는 약 1.7배, 사립대는 약 1.2배 증가

- 일반재정지원사업 운영 및 고특회계 도입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국/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함
 -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4년 기준 약 2,621만원 수준으로 사업 운영 전인 2018년 대비 약 1,079만원 이상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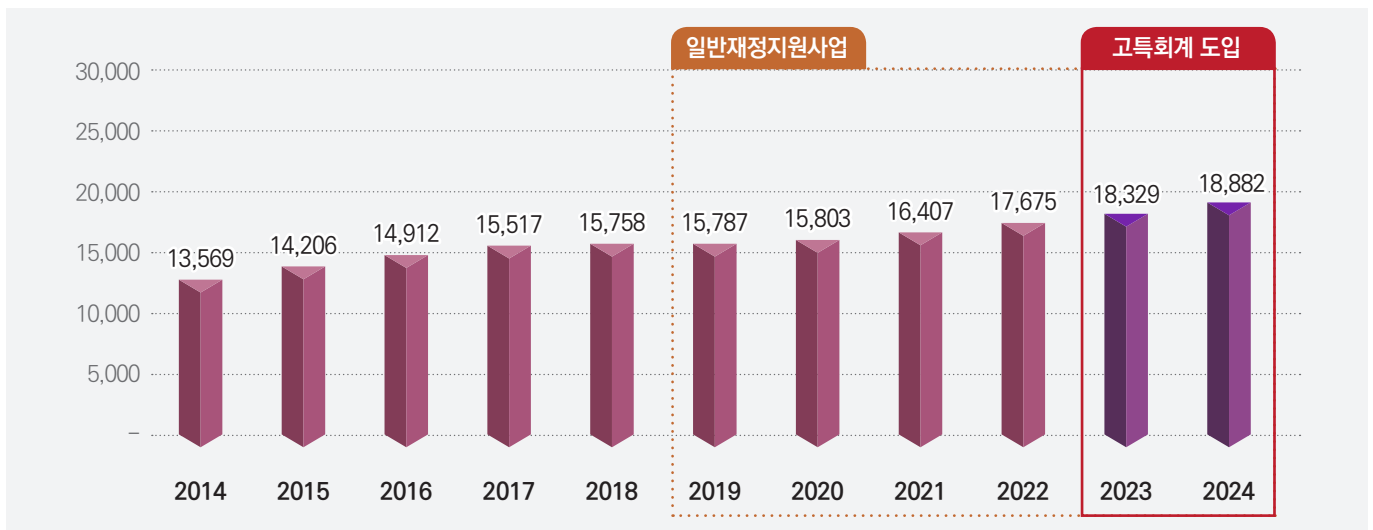
[그림 3] 국립대학의 연도별 학생당 교육비 변화 (단위: 천 원)

주: 국립대학육성사업 및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교대 및 일반대 37교 기준이며, 2025.11.11 기준 항목별 자료가 공시된 경우만 제시함

자료: 대학알리미(각연도)

출처: 남수경 외(2026). [그림 III-3] 재인용

-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4년 기준 약 1,888만원 수준으로 사업 운영 전인 2018년 대비 약 312만원 이상 증가함



[그림 4] 사립대학의 연도별 학생당 교육비 변화 (단위: 천 원)

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일반대 88교 기준(2014~2018년의 경우 캠퍼스 금액 미공시로 제외)이며, 2025.11.11 기준 항목별 자료가 공시된 경우만 제시함

자료: 대학알리미(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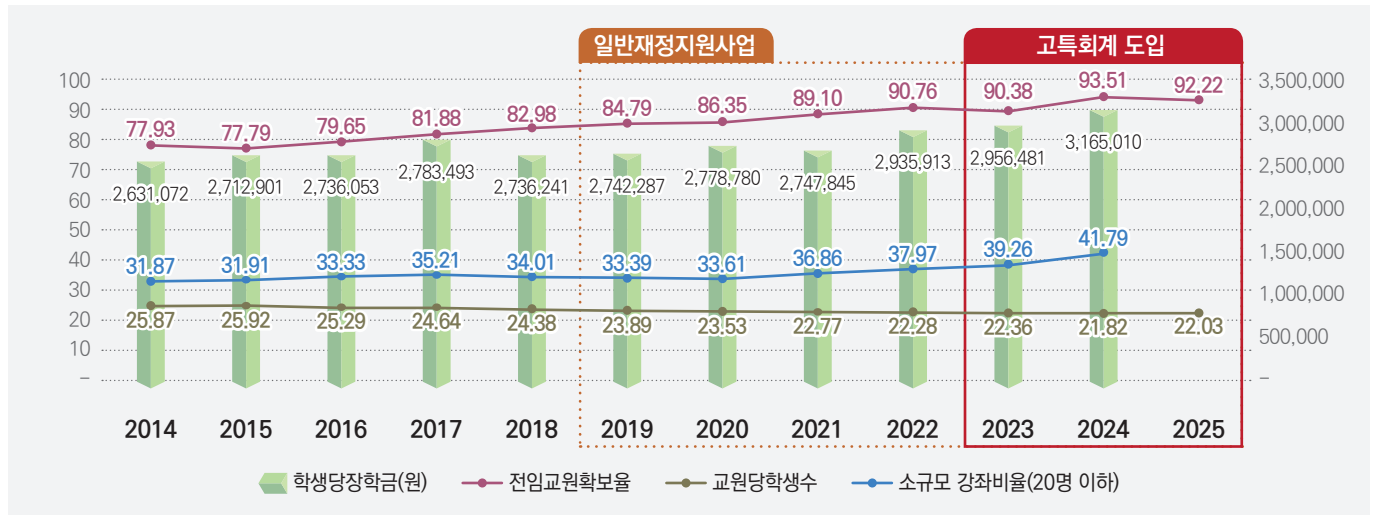
출처: 남수경 외(2026). [그림 III-6] 재인용

❖ 교육 투입지표 변화 추이

일반재정지원사업 도입이후 대학의 교육여건은 점진적으로 개선됨

● 국립대학의 교육여건은 일반재정지원사업이 도입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됨

- 전반적으로 일반재정지원사업이 도입된 2019년 이후 학생들의 교육 여건과 직결되는 학생당 장학금,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당 학생수, 소규모 강좌비율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국립대학의 연도별 교육영역 투입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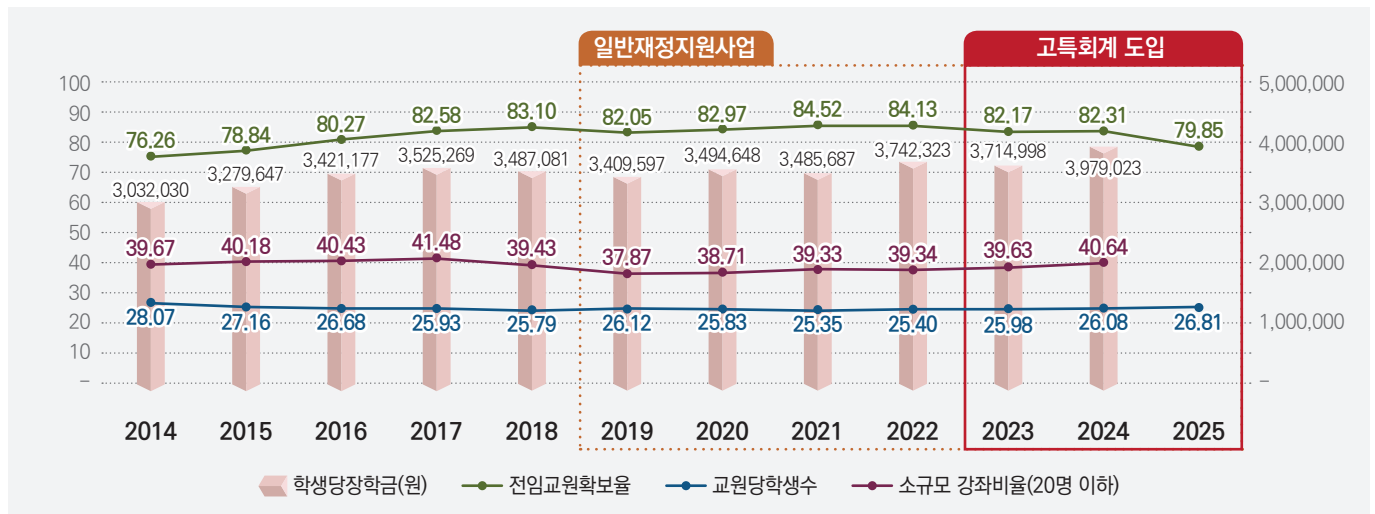
주: 국립대학육성사업 및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교대 및 일반대 37교 기준이며, 2025.11.11 기준 항목별 자료가 공시된 경우만 제시함

자료: 대학알리미(각연도)

출처: 남수경 외(2026). [그림 III-2] 재인용

● 사립대학의 교육여건은 일반재정지원사업이 도입된 2019년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됨

- 학생당 장학금은 2019년 소폭 감소를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일반재정지원사업 이전 약 340만 원 수준에서 고특회계 도입 전후 37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2024년의 경우 약 398만 원임
- 정규학기에 운영되는 소규모 강좌 비율은 2019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원당 학생 수는 연도별 26명 내외 수준으로 정체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다만 전임교원 확보율은 83%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3년 감소함



[그림 6] 사립대학의 연도별 교육영역 투입지표 변화

주: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일반대 96교 기준이며, 2025.11.11 기준 항목별 자료가 공시된 경우만 제시함

자료: 대학알리미(각연도)

출처: 남수경 외(2026). [그림 III-5] 재인용

❖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여부에 따른 교육투자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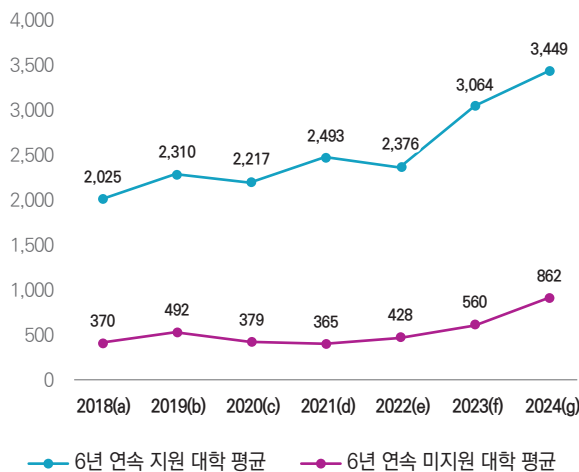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미지원 대학의 변화는 미미함

●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학과 미지원 대학간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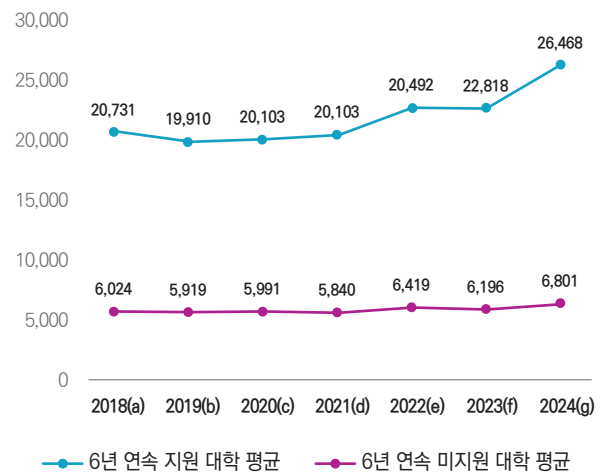
: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각각에 대해서 연도별로 대학의 주요 수입과 지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

- 지원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교육부지원 등 수입은 2023~2024년 고특회계 도입 이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으며, 건축물관리비·교외장학금·학생지원비·기계기구매입비 지출이 2024년에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함
- 6년 연속 미지원 대학은 질 개선 관련 지출 증가가 없고 재정 지원 확대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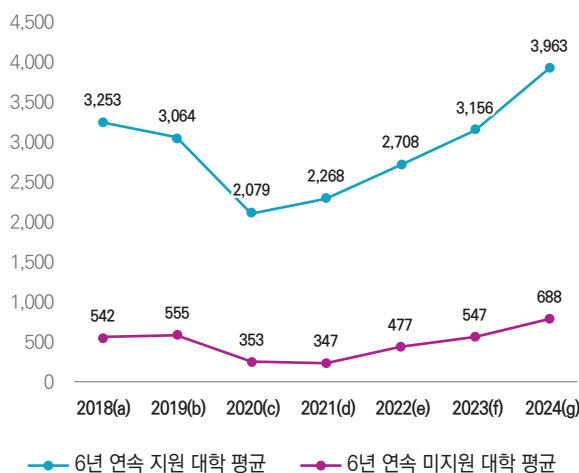
건축물관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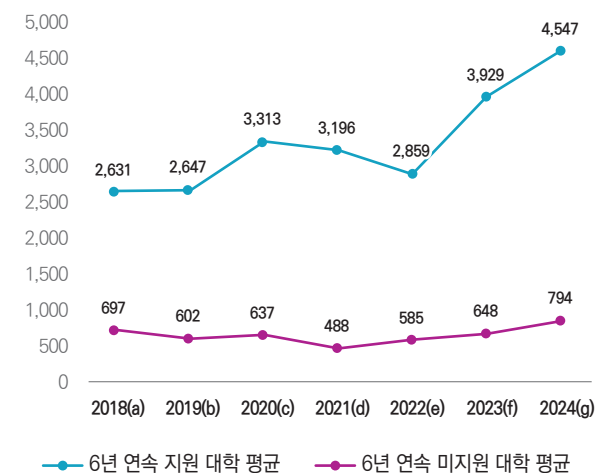
교외장학금



학생지원비



기계기구매입비



[그림 7] 6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미지원 대학의 연도별 유의미한 지출 차이 (단위: 백만 원)

출처 : 남수경 외(2026). <표 III-30>, <표 III-31>을 재구성

❖ OECD 비교를 통한 고등교육 투자 현황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OECD 평균의 68.5% 수준이며, 초·중등교육과의 격차는 심화

- ‘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68.5% 수준임
- 최근 10년간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OECD 평균과의 격차를 비교한 결과, 고등교육은 OECD 평균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음. 또한, 초·중등교육과의 비교에서도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

〈표 3〉 최근 10년간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OECD 평균과의 격차

(단위: \$(PPP))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한국	OECD 평균	격차	대비 비율	한국	OECD 평균	격차	대비 비율	한국	OECD 평균	격차	대비 비율
2013('16)	7,957	8,477	△520	93.9%	8,592	9,811	△1,219	87.6%	9,323	15,772	△6,449	59.1%
2014('17)	9,656	8,733	923	110.6%	10,316	10,106	210	102.1%	9,570	16,143	△6,573	59.3%
2015('18)	11,047	8,631	2,416	128.0%	12,202	10,010	2,192	121.9%	10,109	15,656	△5,547	64.6%
2016('19)	11,029	8,470	2,559	130.2%	12,370	9,968	2,402	124.1%	10,486	15,556	△5,070	67.4%
2017('20)	11,702	9,090	2,612	128.7%	13,579	10,547	3,032	128.7%	10,633	16,327	△5,694	65.1%
2018('21)	12,535	9,550	2,985	131.3%	14,978	11,192	3,786	133.8%	11,290	17,065	△5,775	66.2%
2019('22)	13,341	9,923	3,418	134.4%	17,078	11,400	5,678	149.8%	11,287	17,559	△6,272	64.3%
2020('23)	13,278	10,658	2,620	124.6%	17,038	11,942	5,096	142.7%	12,225	18,105	△5,880	67.5%
2021('24)	14,873	11,902	2,971	125.0%	19,299	13,324	5,975	144.8%	13,573	20,499	△6,926	66.2%
2022('25)	19,749	12,730	7,019	155.1%	25,267	14,096	11,171	179.2%	14,695	21,444	△6,749	68.5%

자료 : 각 연도별 「OECD Education at a G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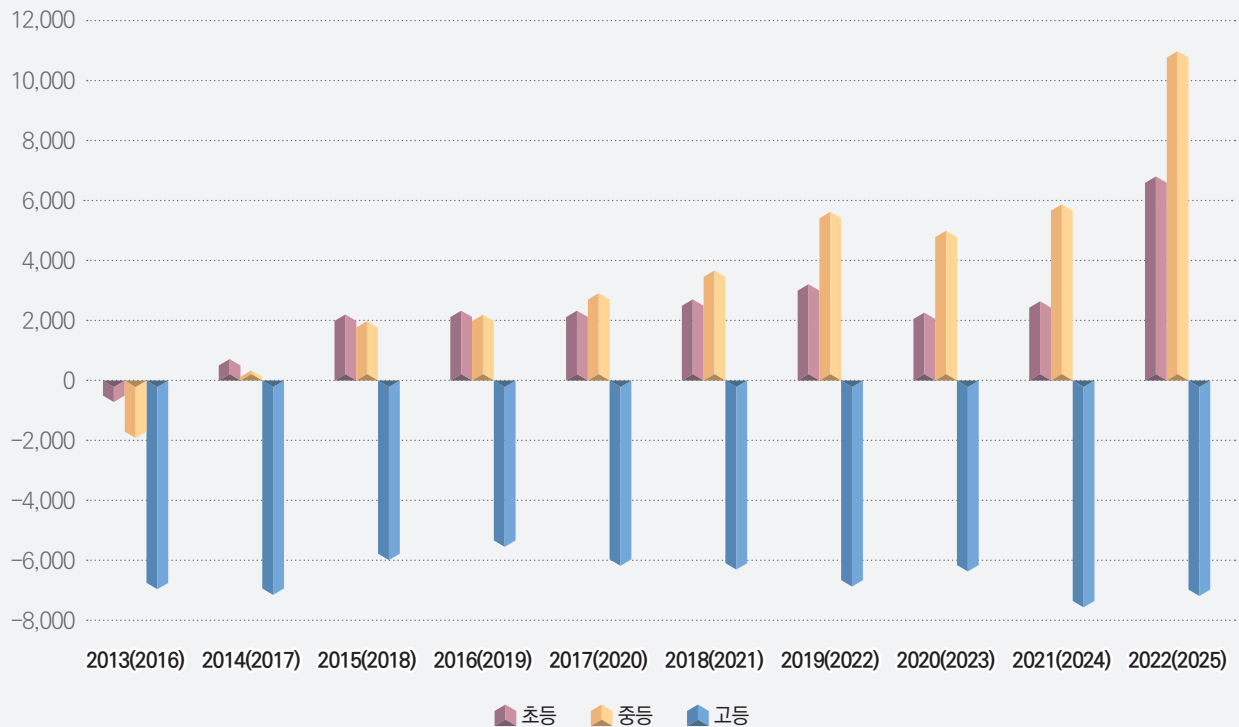
주 : 1. 학생 1인당 공교육비=(정부+민간+해외 재원 공교육비)/재적 학생(재학생+휴학생 등) 수 / 구매력 평가 지수(PPP)

2. 공교육비는 미국 달러 PPP 환산액임

3. 연도는 자료 기준연도(OECD 발간연도)

4. △는 (-)를 의미함

※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22년) 816.61원/\$



[그림 8]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OECD 평균과의 격차 (단위: \$(PPP))

Remark

교육산출 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필요

-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학생 1인당 교육비 역시 증가하고 있음. 재정 지원의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대학의 교육여건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
- 경상비 지원이 없는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속 지원 대학이 그렇지 않은 대학에 비해 학생 지원 및 연구 관련 투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함.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은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기반임
- 한편, 초·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의 평균을 상당 수준 상회하는데 반해 고등교육의 경우 60% 대에 그치고 있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 정부 재정 지원이 가시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추후 교육여건 변화에 대한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 측면(지역성장, 지역균형 발전 등)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함